

## 불안계급(precariat)의 공간 불안정 시대의 공간의 생산, 공간정의, 공간전략

The precariat's space: The space production, spatial justice, and spatial strategies in the precarious society

신혜란\*

이 《공간과 사회》 특집호는 현대사회와 공간의 특징과 문제를 불안정성(precarity)과 불안계급(precariat)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특집호 논문들의 주제(초국적 이주, 이주자 밀집지역, 도시빈민의 반복이주, 청년 주거 불안정성, 취약한 주거지역의 재해)는 현대사회 언론과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현상들이다. 불안정성(Standing, 2016)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세계 금융위기, 이주노동자의 증가, 산업재구조화가 진행되면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생활세계를 지배하게 된 상황을 묘사하는 개념이다. 불안정한(precarius) 노동자계급(proletariat)을 의미하는 신조어인 불안계급은 증가한 불안정성에 고용과 일상생활에서 크게 영향 받는 사람들이다. 세계적인 현상인 불안정성의 증가와 불안계급의 출현이 특히 뚜렷한 곳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한국 사회이다.

---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국토문제연구소, 여성연구소(haeranshin@snu.ac.kr)

이 특집호 논문들은 불안정 사회에 공간은 어떻게 생산되고, 공간정의 (spatial justice)의 어려움은 무엇이며, 행위자들의 공간전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물으며 불안정 시대 공간을 논한다. 노동시장의 성격뿐만 아니라 시공간의 성격, 시공간을 이용하는 사회적 관계와 방식이 다양한 층위와 스케일에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집중한다. 이 특집호에서 네 연구자들은 적극적으로 다른 개념을 들여오고 새 개념을 제시하며 이론적 경험적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신혜란(2017)은 이동을 통한 통치를 뜻하는 ‘이동 통치’ 개념과 ‘공간전략’ 개념으로 구조와 개인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박인권(2017)은 불안계급이 소비와 재생산 관계에서 공간적 배제를 당하는 것에 집중하여 공간정의 문제를 논하여 불안정성 논의에 기여하고 있다. 이영아(2017)는 재해에 취약한 빈곤주거지역을 ‘불안공간’으로 개념화하고, 박미선(2017)은 경제적 불안정성과 지식의 부족으로 주거불안에 빠지는 집단을 보기 위해 주거불안계급이라는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다. 네 논문이 공통적으로 관계와 과정에 집중하여 불안계급의 공간 생산과 이용의 순환이 어떻게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지 비판하고 있다.

불안정 시대의 공간, 불안계급의 공간에 관심 있는 독자들과 동료 연구자들은 각 논문들로부터 다음의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신혜란(2017)의 논문은 불안정성뿐 아니라 초국적 이주자, 이동 연구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 불안정성-이동-공간전략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과 실천영역을 강조한다. 불안정성 논의에 이동통치 개념을 결합시킨 이 논문은 초국적 이주자의 사례를 통해 이동은 통치의 전략이자 개인들의 생존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이동은 불안정 사회를 가져온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 모습 또한 국가라는 행위자의 전략이기도 하고, 이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모습은 다시 이동과 장소 만들기로 나타난다. 이 논문에서 초국적 이주자는 적극적 불안계급이며 그들은 불안정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항해술을 개발한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동/이주하는 모습과 이주자 밀집지역처럼 장소 만들기 실천과 같은 공간전략이다. 하지만 이 논문은 불안계급의 모습의 함의에서 긴장과 딜레마가

있음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불안정성이 새로운 위기이자 기회라고 볼 때, 그 불안정성에 개인이 대응하기 위한 결국 착취받을 기회를 찾는 노력일 뿐인가, 아니면 기회를 이용하여 생존하는 것 자체가 저항인가.

박인권(2017)은 한국도시에서 사회적 약자가 공간적 배제를 통해 불안 계급화, 불안정화되는 메커니즘을 알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답하고 있다. 이 논문은 불안정성이 생산관계뿐만 아니라 소비와 재생산의 영역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불안계급이 생산과 소비의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난 개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청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도시빈민, 이주여성, 세입자, 노점상—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의 구술자료를 통해 주거 불안정, 사회관계의 단절, 각종 의사결정과 공동체 활동 참여 제약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불안정성은 증폭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빈민이 반복해서 이주해야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공동체 활동도 제약을 받고 심리적 불안정성도 증가한다. 주거불안정은 생산관계에서 발생한 불안정성이 그대로 소비 및 재생산 관계로 전이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때로는 역으로 주거 불안정성이 고용 및 생산관계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불안정화(precariatization) 과정을 동태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인 사회적 배제와 이의 공간적 변형인 공간적 배제 개념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영아(2017)의 논문은 근래에 대중적인 관심을 많이 받는 재난, 특히 주거지역 재난을 이해하려는 독자들이 읽으면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 논문은 그 동안 빈곤층 주거 공간으로 개념지어진 주거지역을 위협, 재해 취약성에 초점을 두어 ‘불안공간’으로 재개념화하는 것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살펴보면서 ‘불안 공간’을 개념화한다. 도시 빈곤층이 밀집한 주거지역이 재난에 취약해지는 과정과 재해 발생 후 사회와 정부가 그 재해를 해석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과정을 한국의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와 영국의 런던 그렌켈 타워 사건을 통해 살핀다. 이 논문 또한 불안 공간화 과정에 몰두하며, 그에 더해 재해 후의 삶이 더욱 불안정화, 불안화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살핀다. 두 사례가 공급주체가 다른 점에도

불구하고 화재에 취약한 불안 공간으로 되어간 과정이 공통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렌펠 타워 사건 후 주거 안정성을 주는 것과 동시에 정치적 동요를 막는 통제가 함께 사용된 것을 보여주어 불안계급의 정치적 특징에 대한 이해도 더하고 있다.

박미선(2017)의 논문은 요즘 언론에서 많이 다루는 청년주거, 주거불안을 그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관심에 대한 응답이다. 박인권의 논문에서도 다룬 공간적 배제의 문제 중 주거문제에 집중한 이 논문은 주거불안계급을 정의하고 주거불안화 과정을 현황과 심층면담에 기반하여 살피고 있다. 대표적인 집단으로 1인 청년 주거가 가지는 주거불안을 주택탐색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안정성, 거주과정에서의 불안정성, 주거상향이동 가능성 측면에서 살핀다. 즉, 주거불안계급이 유연해진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불안정성을 가진 상태에서,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거주를 위한 삶의 지식이 부족한 주거문맹의 특징이 더해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에 놓인다.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주택탐색, 계약과정의 불안정성을 보여주어 주거불안 문제를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틀은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향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1인 가구의 주거문제, 주거불안에 대한 이해를 넓혀준다.

## 참고문헌

- 박미선. 2017. 한국 주거불안계급의 특징과 양상: 1인 청년가구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제27권 4호, 110~140쪽.
- 박인권. 2017. 도시의 사회적 약자 불안정화 과정: 불안계급 이론의 비판과 확장. 《공간과 사회》, 제27권 4호, 36~78쪽.
- 신혜란. 2017. 이동통치와 불안계급의 공간전략. 《공간과 사회》, 제27권 4호, 9~35쪽.
- 이영아. 2017. 불안 공간과 도시 빈곤층의 불안한 삶. 《공간과 사회》, 제27권 4호, 79~109쪽.
- Standing, G. 2016.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London: Bloomsbury Publishing.